



다정함으로...

정은/가족치료 연구소장 www.tafamily.net

사 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것을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 먹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 원인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완치가 되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파지는데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비록 몸은 아프더라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붙잡고 어루만지다 보면 건강은 회복될 것이다.

이제 여섯살인 수진은 천식으로 자주 입원을 하곤 한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수진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엄마가 집안일로 분주하거나 혹은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같다 싶은 느낌이 들면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 당한다는 마음이 들면 증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린 꼬마의 외로움은 온몸과 내장으로 퍼져 심하면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숨이 막히게 한다. 이러한 증상이 어찌 어린 마음에서만일까. 우리들의 마음이 탐욕스러움으로 향하면 위암, 위궤양, 위염 등의 소화기 계통에 병이 나고,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노여움으로 뻗으면 폐, 기관지 계통에 이상이 온다. 피부에 돌아나는 부스럼이나 종기 등도 마음에서 평상심을 잃었을 때 솟아 나온다. 몸살도 마음의 고통이 원인이

되어 피로와 겹쳐 일어난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몸이 부르는 소리에 귀기울여 내 手足을 효자삼으라 하셨던 것일까.

행복으로 통하는 문은 도처에 있다. 발견을 못 해서 못 걷고 발견했더라도 게을러서 못 걷는다. 그러나 안타까워 할 일이 아니다. 자각한 자들이 그 문화를 정착시켜 가면 될 뿐이다.

청량한 가을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하늘바람소리, 사람들의 눈길, 야호! 발견되는 주차 공간, 다정한 자녀의 표정, 친구의 전화 목소리에서..... 은밀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작은 마음들을 느끼고 나누는 생활이 될 때 사람끼리 만나는 공동체 사회는 드디어 밝음의 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관념속에서만 놀던 성현들의 말씀이 머리에서만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어리둥절할 만큼 가까운 곳에 소중한 길을 두고도 발견하지도 못했고 걸지도 않았던 시간들, 부모에 대한 감사함, 남편·아내에 대한 감사함. 자녀에게 느끼는 기쁨 등 무수한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산다. 이미 있고(既存) 이미 이룬 것(既成)에 대한 둔감화 현상이었음을 깨달아 반짝이는 인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당신에게 축복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일깨워 주고 싶다. PPFK

